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한 만 영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개인과 사회의 유기적 상호관계에  
대한 표현연구

-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

201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이지현

개인과 사회의 유기적 상호관계에  
대한 표현연구

-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

한 만 영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이지현

# 인 준 서

이지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 개요

라틴속담에 “취향에 관해서는 논하지 마라. De gustibus non est disputandum” 라는 말이 있을 만큼, 개인의 취향은 옳고 그른 것이 없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답도 없다. 그러나 취향에 대한 분류는 계속되고 있다. 개인은 각자의 취향이 있기 마련이고 자연스레 동일한 취향을 가진 이들과 집단이 형성되는데, 이는 다른 취향집단으로부터 구분되는 무엇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취향에 대해 자부심을 넘어 우월성을 가지게 된다.

사람에게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을 찾으면서 자신의 개성을 만들어 가려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보완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은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취향을 중요시여기고 개성화를 지향한다. 이에 현대인들은 자신을 누구와도 대체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끊임없이 ‘남들과 다른 나’ 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대중사회에서, 현대인들은 매스미디어로부터 더욱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타인지향적인 현대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는 관심마저 고조되면서 개인이 주변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배가 된다. 때문에 현대인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동시에 서로를 모방한다.

이와 같은 개인과 사회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개인에게 형성되는 취향과 성향은 순전히 개인의 능동적인 선택에 의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본인 역시 본인의 특별한 경험에 의해 생겨난 ‘나만의 취향’ 을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나’ 만의 특별한 경험으로 만들어

진 취향이 결국 일반화에 속해지는 체험은 본인에게 자신의 특별함을 재인식하게 되는 동시에 개인과 집단사이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관찰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로써 작용하였다.

작가는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발견하고 이해하는가에 대해 자신의 조형적 언어로 그것들을 논의한다. 본인 역시 개인과 집단사이의 간극을 나름의 조형적 방법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제작한 작품과 함께 본 논문에서 그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먼저 개인과 상호관계에 놓인 사회집단이 개인의 취향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왔는지에 대해 사회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였다. 이때 개인의 취향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피에르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서술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 주로 사용된 소재는 상징적 기호로서의 사물과 텍스트이다. 특히 현대인에게 익숙한 일상품들이 작품의 주된 요소로 사용되고 텍스트 또한 진부함을 내비치는 문구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개인의 중요한 취향이 집단 속에서는 일반화되기도 함을 보이고자함이다. 또한 동일한 형태로 수를 늘려가면서 그리고 또 한꺼번에 배치하여 보여주는 연작형태를 통해, 한 개체와 전체로도 대변되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렇게 본인의 작품은 상징기호의 사용과 더불어 반복적 표현과 연작 형태의 조형적 표현방법을 작품의 알레고리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미를 우회적으로 부각시킨다. 본 연구 과정을 통해 본인작품의 이론적 배경과 조형적 방법을 분석해봄으로써 앞으로의 작품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모색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                                   |    |
|-----------------------------------|----|
| I. 서론 .....                       | 1  |
| II. 이론적 배경 .....                  | 3  |
| 1. 현대사회 속에서의 개인과 집단의 유기적 관계 ..... | 3  |
| 2. 아비투스 개념을 통한 개인과 집단의 해석 .....   | 6  |
| 3. 현대인의 공통된 특성 .....              | 9  |
| III. 작품의 전개와 표현방법 .....           | 13 |
| 1. 상징기호로써의 소재선택 .....             | 13 |
| 1) 커피(음료) 컵; 한국에서의 상징적 의미 .....   | 16 |
| 2) 텍스트 .....                      | 19 |
| 2. 조형적 표현 .....                   | 22 |
| 1) 상징적 반복을 통한 현대사회 조명 .....       | 22 |
| 2) 단순화와 무채색을 통한 현대인의 心象 표현 .....  | 24 |
| IV. 작품의 분석 .....                  | 28 |
| V. 결론 .....                       | 49 |
| 참 고 문 헌                           |    |
| 참 고 도 판                           |    |
| ABSTRACT                          |    |

## 작 품 목 차

[작품1] Journal Extime, 109×79cm, mixed media on paper,  
2006

[작품2] Journal Extime, 79×109cm, mixed media on paper,  
2005

[작품3] Just Cup, 116.8×91cm, acrylic on canvas, 2006

[작품4] Something Special, 12×12×2cm, print on paper with  
glue binding, 2005~2007

[작품5] Something Special, each unique, acrylic on paper,  
2007

[작품6] In her twenties, 12×12×1.8cm, print on paper with  
glue binding, 2008

[작품7] missing you, 90×20cm(each), acrylic on canvas, 2007

[작품8] Just Cup(series), variable size, acrylic on canvas, 2010  
(64×48cm each 100 panels)

[작품9] Shared understanding(series), 21×21×5cm, acrylic on  
canvas, 2010

[작품10] Just Cup, 24×21cm, acrylic on canvas, 2010

[작품11] Intimate Stranger, 50×40cm(each), colored pencil on  
paper, 2010

## 도 판 목 차

- [도판1] Barbara Kruger, Picture Reading(detail), 1978
- [도판2] Jenny Holzer, 10 Inflammatory Essays,  
17×17 inches each, posters on colored paper, 1979-82
- [도판3] Allan McCollum, Each and Every One of You,  
4×6 inches each, 1,200 digital prints on cotton rag  
(framed), Ed. 3, 2004 (Installation)
- [도판4] Andy Warhol, 200 Campbell' s Soup Cans(detail),  
72×100 inches, Acrylic on canvas, 1962
- [도판5] Allan McCollum, Drawings, Pencil on museum board,  
each unique, 1989 (Installation)
- [도판6] Allan McCollum, The SHAPES Project, 4.25×5.5 inches  
each, Framed digital prints, each unique,  
Ten samples of 429,981,696 SHAPES, 2005~  
(Installation)
- [도판7] Henri Matisse, Dance II, 260×389cm, Oil on Canvas,  
1910

## I. 서론

본 논문은 ‘monoground, commonground’ 라는 제목으로 2010년 9월에 있었던 본인의 개인전에 전시된 작품을 중심으로 본인에게 영향을 미친 이론적 배경과 작품의 조형적 표현 방법을 분석 정리한 것이다.

“예술가의 리얼리티는 예술가가 자신의 시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반영하며 심지어 그들의 창작품은 그런 이해를 형상화하기도 한다.” 라고 마크 로스코(Mark Rothko, 1903~1970)는 그의 예술철학 저서 『예술가와 리얼리티 The Artist's Reality』<sup>1)</sup>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처럼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사상을 반영한다. 예술은 의사소통의 한 형식이고 사회적 활동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작품은 작가가 생각하는 현실의 개념을 재현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의 작업은 현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본인이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불안과 소외, 그로인해 생겨나는 고독을 인식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러한 동기는, 로스코가 말한 바와 같이, 작가가 세상에 대해 느끼는 방법을 작가 나름의 조형적 방법으로 표현하며 현실 개념을 재현하는 것과 같다.

본인의 작품들은 과거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인식되었던 고립과 불안, 고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초기 작품들은 혼자 있는 상황에서 주변의 풍경과 사물에 대한 시선을 중첩적으로 표현한 드로잉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작품1,2 참조] 그러나 점점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나 행동 등이 비단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즉 이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양적, 질적으로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감정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1) 마크 로스코의 사후에 출판된 그의 초기 예술철학 저서로, 그의 아들 크리스토퍼 로스코가 편집하여 2004년 출간되었다. 우리나라에는 2007년 다빈치에서 김순희 번역으로 출간되었다.

이러한 경험으로 본인은 개인의 문화를 완성시켜준다고 믿던 어떤 특별한 개인의 취향이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의 취향에서도 보편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삶의 형태일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관찰로 본격적인 작품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본인은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개인과 사회 집단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한 본인의 작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산업사회가 도래한 이후 개인과 집단의 모습에 대해 사회학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의 취향이 개인의 사회화과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 1930~2002)의 ‘아비투스<sup>2)</sup>’ 개념으로 뒷받침하면서, 개인의 취향이 사회 집단과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에 대한 본인의 관점을 정리하겠다. 이어 III장에서는 본인이 작품제작 과정에서 선택한 조형요소인 반복된 연작형태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 서술하고, 상징기호의 사용과 단순화시킨 무채색조의 화면이 내포하는 의미가 본인의 작품에 어떠한 요소로서 작용하는지 살펴보겠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본인은 현대인임과 동시에 예술가로써 주변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과 창작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앞으로의 작품제작 과정에 있어 중요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

2) 이 개념은 어떤 방식으로 인간이 사회적 존재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개인의 위치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사회화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다양한 외부조건에 의해 후천적으로 길러진 성향, 사고, 인지, 행동, 판단의 체계를 의미한다. 이 아비투스<sup>2)</sup>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홍성민, 「문화와 아비투스」, 나남출판, 2000) 또, 학자들 마다 이 아비투스의 번역이 다르다. 대부분 ‘아비투스’로 번역되나 이는 부르디외 저작의 초기 번역본가운데 일본어 표현을 가져다 쓰면서 굳어진 것으로 완전히 국적 불명의 용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어식으로 읽자면 아비투스<sup>2)</sup>가 맞고, 라틴어식으로 읽자면 하비투스<sup>2)</sup>가 맞다.(Stéphane Olives, 「부르디외,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다」, 이상길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옮긴이의 말을 인용) 이에 본인은 본 논문에서 아비투스<sup>2)</sup>라 통일하여 표기하겠다.

## Ⅱ. 이론적 배경

### 1. 현대사회 속에서의 개인과 집단의 유기적 관계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는 사람들을 단순한 노동으로부터 멀어져 점점 개인과 개인의 특수성, 즉 개인을 남과 비교될 수도, 대체될 수도 없는 존재로 만들고, 그런 만큼 더욱더 다른 사람들과 보완 관계를 맺도록 하는 특수성을 요구해왔다.<sup>3)</sup> 미국의 한 청바지 회사의 국내광고를 예를 들면, 광고 속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난 나야’ 라고 말하며 자신만의 개성을 생명 같이 여긴다. 그러나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청바지가 기계로 대량생산되는 것들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젊은이들은 광고 속 주인공들과 같이 개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회사가 대량생산으로 내놓은 청바지를 입으며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sup>4)</sup> 데이비드 리스먼(David Riesman, 1902~2002)은 그의 저서 『고독한 군중』에서 사회적 성격에 따라 모든 사회를 세 가지로 구분했다. 그 중 세 번째인 ‘초기의 인구감소의 사회’에서는 위와 같이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타인지향적 other-directed 인간이라 칭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타인지향에 의존a society dependent on other-direction 하는 사회라고 불렀다.<sup>5)</sup> 개인의 개성을 추구하기 위해 결국 대량 소비된 물건을 구매하는 모

3) Georg Simmel, 「집단의 모더니티 읽기」, 김택영·윤미애 역, 새물결, 2005, p. 35

4) 남경태, 「개념어사전」, 들녘, 2006, pp. 35-38참고

5) 리스먼은 “사회적 성격”을 “성격”중에서도 사회집단들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고 그것은 그러한 집단들의 경험의 산물이라 하였다. 이 사회적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모든 사회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고도증가 잠재력의 사회인 전통 지향적 사회, 두 번째는 과도기적 인구증가의 사회로서 내적 지향에 의존하는 사회, 마지막으로 초기 인구감소 사회로서 이들을 타인지향적 인간이라 부르며 그들이 살고있는 사회를 타인지향에 의존하는 사회라 불렀다. 이 사회는 그 사회의 전형적인 성원들에게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 및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에 의해 그 동조성이 보증되는 성격을 띤다고 하였다. (David Riesman, 「고독한 군중」, 이상률 역, 문예출판사, 1999) 본인은 여기에 남경태가 이야기 한 것과 같이 리스먼의 세 가지 구분을 전통사회, 과도기 사회, 현대사회로 대체하겠다. (남경태, p. 37)

순직 태도가 바로 타인지향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물질적인 환경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이 문제가 된다. 또한 새로운 매스 미디어에서 나오는 말과 이미지는 그 흐름이 순식간에 퍼지며, 이러한 현상은 대중문화매체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지속된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다른 동시대인들을 지향(志向)의 원천으로 두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지속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타인 지향적 인간은 여기저기서 오는 신호를 민첩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sup>6)</sup> 이러한 환경에서는 부모들도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 동시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매스 미디어에도 귀를 기울인다. 이미 타인지향적인 부모가 그들 자녀에게 가르치는 교육방식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타인지향성은 지속된다.

‘타인 지향적 사람들이 사는 도시’ 는 점점 거대해 지며 계층화되고 집단화 된다. 사람들은 같은 나이, 같은 지위에 속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고, 이 속에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공유된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이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 관계를 맺는다.<sup>7)</sup> 현대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각자 나름의 방식대로 “일반적이고 동일한 것을 향한 경향과 특수하고 유일한 것을 향한 경향을 화해시키며, 또한 사회 전체에 대한 헌신과 개체성의 관철을 타협” <sup>8)</sup>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 과정에서 ‘유행’ 이 크게 한 몫 하게 된다. 원래 유행이라는 것은 산업화 전부터 있었던 현상이다. 고대부터 있어왔던 유행은 당시 사람들의 패션이나 생활방식 등에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그 시대의 빨리 변하지 않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대의 ‘유행’ 과 차이가 있다.<sup>9)</sup> 유행은 모방하려는 심리적 경향에 의해 유지된다.

---

6) David Riesman, pp. 111

7) Stéphane Olivesi, 「부르디외,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다」, 이상길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p. 22

8) Georg Simmel, p. 56

9) Thomas Hine, 「쇼핑의 유혹」, 김종식 역, 세종서적, 2003, p. 137

모방은 그 내용이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에 개인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개인적·창조적인 큰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아도 쉽게 이루어진다는 매력을 지닌다. 동시에 모방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갖게 해주며 스스로 이루어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부터도 해방시켜 준다. 이렇게 모방행위를 통해 설명되는 유행은 창조성과 자립성이 부족한 그러나 주목받고 눈에 띄고 싶어 하는 개인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표현 방법이 된다.<sup>10)</sup> 특히 타인지향적인 현대사회에서는 타인의 취향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행의 변화에 뒤떨어지는 것을 피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유행을 따르는 행위는 가장 손쉬운 방식으로 자신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데, 이때 유행의 기반이 되는 정신이 자신을 높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생각의 연유에는 앞서 말했듯이 매스미디어의 발전도 크게 한 몫 한다. 매스미디어는 대중문화의 형성바탕이 되고, 현대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있는 만큼 현대인의 의식과 정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스미디어가 어떤 특정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그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신뢰하게 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나다.<sup>11)</sup> 맨 처음 예로 들었던 청바지광고 이야기를 다시 보면, 대량생산이 가능한 기업에서는 자신들의 물건을 팔기 위해 광고를 통해서 심사숙고한 계획으로 유행을 선동하고, 이를 따르는 개인들은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기 위해, 혹은 유행을 따르기 위해, 이를 구매하면서 점점 자신만의 취향과 정체성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향이라고 믿는 것은 과연 말 그대로 오로지 순수한 개인의 취향일 뿐일까? 본인은 위에서 언급한 사회와 도시의 발전에 따른 현대사회의 메커니즘이 개인에게 어떻게 작용하였는가에 대해 다음

10) Georg Simmel, 「집현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윤미애 역, 새물결, 2005, pp. 56~61

11) 이선미, 「현대사회에서의 관념과 행동의 획일화에 대한 시각적 표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p. 10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 2. 아비튀스의 개념을 통한 개인과 집단의 해석

개인의 취향은 과연 자신만의 독특한 것일까? 본인은 이 질문의 답을 부르디외의 아비튀스(Habitus)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아비튀스는 부르디외의 핵심개념으로써, 그는 아비튀스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인간이 사회적 존재가 되는가를 설명한다. 아비튀스는 습관(habit)과 구별된다. 습관은 무의식적이고 반복적이며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것이지만, 아비튀스는 그것을 형성하였던 최초의 조건화의 기계적 재생산도 아니며, 예상치 못한 새로움의 창조물도 아니다.<sup>12)</sup> 우리는 일상 속에서 개인의 선택에 대한 취향이나 미적 감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취향의 차이에 대한 부르디외의 분석은 기존의 취향에 대한 미학적 접근 방식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부르디외에게 취향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나거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계급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경험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향에 대한 사회학적 인식은 모든 취향과 창조성, 문화적 가치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주장하는 “일종의 칸트류의 순수미학에 대한 공격이라 볼 수 있다.”<sup>13)</sup>

부르디외는 『실천 감각』에서 아비튀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실존의 조건에 근거하는 특정한 계급에 관련된 조건들이 아비튀스를 생산해 낸다. 지속적이면서 또 다른 것으로 전이될 수 있는 성향의 체계로서 아비투

12) 장미혜, 「소비양식에 미치는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의 상대적 효과: 서울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p. 8

13) 양은경 외, 「문화와 계급」, 동문선, 2002, p. 87

스는 구조화된 구조이며, 또한 구조화하는 구조처럼 작동하는 경향을 띤다. 다시 말해 발생의 원칙으로서 그리고 실천과 표상을 조직하는 요인으로서 이것은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식하지 않은 채 객관적으로 자신의 목표에 상응하며,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동작들을 순간적으로 제어하기에, 주어진 규칙들에 복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작동들은 어느 정도 통제된 성격과 규칙성을 갖는다. 이 모든 것이 행위를 조화시키는 지휘자가 없더라도 집단적으로 조화를 이룬다.<sup>14)</sup>

아비튀스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는 아비튀스가 개인이 사회화되면서 얻게 되는 영구적인 하나의 성향체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향은 각자의 조건에 의해 개인에게 내면화된 태도, 지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사고하는 경향으로서 행동과 지각·사고의 무의식적 원칙으로 기능한다.<sup>15)</sup>

위에서 ‘특정한 계급에 관련된 조건’이라는 말은 아비튀스가 계급과 연관된 것임을 말해준다. 사회는 근본적으로 불평등하다고 보는 부르디외는 아비튀스가 구체적으로 보이는 일상생활을 토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계층을 분류하였는데, 신분적 질서는 학력이나 가정환경으로부터 유래한다고 보았다.

일차적으로 형성되는 아비튀스는 태어나면서 만나게 되는 부모로부터 얻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성향과 비슷한 성향체계가 형성되며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 의해 이어 또 다른 성향체계가 이루어진다. 물론 여기에서 습득된 일차적 아비튀스는 경험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일차적으로 형성된 성향 체계에 개인적 경험과 사회화에 따라 새로운 이차적 성향(이차적 아비튀스)이 획득되는 것이다.<sup>16)</sup> 그런데 여기서 개인의 성향이 반드시 일차적으로 부여받은 아비튀스에 의해 수동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아비튀스는 행

---

14) Pierre Bourdieu, *Le sens pratique*, Editions de Minuit, 1980, pp. 88~89. 홍성민, 「문화와 아비튀스」, 나남출판, 2000, pp. 43~44에서 재인용.

15) Patrice Bonnewitz, 「부르디외의 사회학 입문」, 문경자 역, 동문선, 2000, p. 90

16) 장미혜, p. 15 참고

위자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생활’의 산물이지만, 개인적, 집단적 실천을 재생산 하는 기능을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비투스란 이전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지만 이전의 구조를 단순히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과 접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구조로 변화시킨다는 의미에서 ‘구조화된 구조이며, 또한 구조화하는 구조’라고 하는 것이다.<sup>17)</sup> 이렇게 아비투스는 “항상 재구성되는 하나의 내적 구조이다.” 개인은 일차적 아비투스에 맞춰 새로운 경험들을 인지하게 되면서 그것은 앞으로 또 다른 성향을 획득할 조건이 된다. 한 마디로 과거와 현재의 경험의 산물이 바로 아비투스이다. 이는 아비투스가 단순히 행위의 반복이 아닌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내적 구조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개인에게 형성된 아비투스는 개인의 삶의 모습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개인이 속한 계층이나 집단을 나타내게 되며, 개인은 다른 이들과 관계 맺음으로써 또 다른 집단과 계층을 형성하게 된다. “즉 각 개인의 성향체계는 다른 것들의 구조적인 한 변이형이라는 것인데, 바로 여기서 계급 내 위치와 삶의 여정의 특수성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는 행위자들은 배우자나 직업을 선택하거나 또는 대통령을 뽑을 때, 가구를 살 때 같은 의견을 모으기 위해 애를 쓸 필요가 없다. 삶의 방식이란 개인의 취향이나 신념이며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계층(혹은 계급)의 총체적 실천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르고, 또 자기 계획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각자는 저절로 자신도 모르는 채 것처럼 사고하고 느끼고 선택하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일치”하게 되기 때문이다.<sup>18)</sup>

개인과 집단을 둘러싸고 있는 집, 가구, 그림, 책, 자동차, 술, 담배, 행수,

17) 현택수 등, 「문화와 권력: 부르디외 사회학의 이해」, 나남출판, 1999, p. 57

18) Bonnewitz, pp. 92~101

옷 등과 같은 특성들 전체와 스포츠, 게임, 문화적 여가활동 등을 통해 탁월함을 드러내는 실천 속에서 체계성을 찾을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모든 실천의 발생원리이자 통일원리인 아비튀스의 총괄적인 통일성 안에 있기 때문이다.<sup>19)</sup>

인간은 아비튀스를 습득해 가는 과정에서 사회화된다. 개인은 성향 체계이고 실천 감각인 아비튀스의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사회적 행위자로 남는 것<sup>20)</sup>이며, 매 순간 부딪히는 사소한 선택조차도 나를 만들어온 아비튀스의 지휘 아래 있는 것이다.

본인은 위 이러한 아비튀스의 개념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취향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성향을 동일한 아비튀스가 부여됨으로써 발생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때 1에서 설명한 사회 환경이 이러한 상황을 더욱 가속시키고 배가 시킨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요즘의 현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 3. 현대인의 공통된 특성

앞서 부르디외의 아비튀스는 계급과 관련된 것임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본인은 본인의 작업과 연관 짓는 과정에서 계급이라는 표현 대신에 현대인이라는 계층으로써 아비튀스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계급과 계층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 엄연히 말하면 다른데다, 계급 현상은 무엇보다도 집단 간의 관계 특히 갈등관계에 주목하기 때문인데 요즘의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와 달리 계급간의 엄격한 선이 희미해졌을 뿐만 아니라 범람하는 매체들로 인하여 특정 계급만이 누릴 수 있었던 재화역시 보편화되었기 때문이

---

19) Pierre Bourdieu, 「구별짓기」, 최종철 역, 새물결, 2005, p. 316

20) 장미혜, p. 26

다. 물론 계급과 계층 간의 ‘구별 짓기’ 라는 보이지 않는 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현대인이라는 계층 속에서도 개인의 아비투스<sup>21)</sup>는 수도 없이 다양하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살면서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로부터 받는 조건과 영향은 동일하고, 또 현대사회, 현대도시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이라는 계층으로 나누는 것이 ‘계층’이 가지는 자의적이고 연속적이며 서로 이어져 경계가 모호한 특성을 잘 표현해 주기 때문이다.<sup>21)</sup>

요즈음의 현대인들은 도덕적으로 훌륭해지는 것 보다 남에게 호감을 주는 것에 관심을 쏟는다. 과거 관료화되어가며 개인의 비중이 약해지던 사회에서는 산업의 효율적인 조건에 맞는 개인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답답함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고 싶어 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sup>22)</sup> 앞서 리스먼이 『고독한 군중』에서 지적했듯이, ‘타인지향형 사회’의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지기 위해 타인들의 취향에 강한 관심을 갖는다. 요즘의 현대 사회는 이러한 ‘타인지향형 사회’가 더욱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미지와 재화는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은 ‘저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것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의 속도와 범위를 강화”시키는 매스미디어의 발달이 이를 더 가속시키고 있다.<sup>23)</sup> 게다가 “영향력이 큰 업체들은 유행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취향을 규정하고 촉진”<sup>24)</sup>시키고 있다. 마치 자신들의 물건을 사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나를 돋보일 수 있으며 심지어 사랑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이다.

과거에 비하면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 행동의 지침을 제공했던 사회적 코드는 약화 되었고, 개

21) 홍두승,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동아시아, 2010, pp.29~30

22) Jeremy Rifkin, 「공감의 시대」, 이경남 역, 민음사, 2010, p. 493

23) Anthony Giddens, 「현대 사회학」, 김미숙 외 7인 역, 을유문화사, 2001, pp.78~91

24) Hine, p. 197

인들의 삶을 규정한 많은 규제들이 사라지면서 개인은 “능동적으로 자신들을 구성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개인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체성의 틀이 만들어졌고, 자연스레 현대인의 정체성은 과거보다 더 복잡해졌다.

심리학자 주디스 리치 해리스(Judith Rich Harris, 1938~)는 『개성의 탄생』에서 ‘내가 나이게 만드는 이유’, 즉 인간의 사회적 발달의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 째는 나와 남을 관계 짓는 관계체계, 두 번째는 집단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사회화체계, 마지막으로 그 집단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지위체계가 그것이다. 이 중 두 번째 사회화체계에서는 개인의 모방심리가 사회화의 주요 근간이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바로 사회구성원의 행동을 모방하여 자신의 행동방식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그들과의 유사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어 지위체계는 집단 구성원들과 경쟁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우위에 두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단계인데, 이러한 단계는 근본적으로 모방을 통해 사회집단 속에 순응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차별화 욕구를 만족시키는 유형의 본질과도 맞물려진다고 여겨진다.

현대인들에게는 사회적 집단에서 약속되어진 규범을 충실히 따르지만, 밑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개성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항상 공존한다. 집단과 융합하면서 사회화되고 또 그 안에서 분리되어 개인화를 추구하는 이 두 가지 경향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성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대사회에서는 취향도 사회화 된다. 그리고 사회화된 표준적인 행위가 이를 강화시킨다.

위 2에서 아비투스론을 통해 설명했듯이, 취향은 개인적인 문제에만 국한될 수 없다. 그리고 또한 과거에는 개인의 아비투스를 형성함에 있어 가족이나 주변 환경으로부터만 국한되어졌던 것이 이제는 지구촌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전혀 없이 서로에게 노출되어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태생적 환경

만큼이나 같은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성격과 사회행동이 더 비슷하다.<sup>25)</sup> 즉,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에 맞는 아비투스 가 동일하게 씌워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한 현대사회의 메커니즘 속에서 이 시대에 현대인들이 자신의 개성을 뽐내기 위해 행하는 것들은 결국 다시 이 사회가 내보이는 하나의 사회화된 표준적 규범일지 모른다. 이에 본인은 현대인의 삶의 방식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필수 불가결임을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을 확대하여 현대도시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 이들에게서 ‘현대인의 공통된 아비투스’를 찾고자 하였다.

---

25) Allik, J., and McCrae, R. R.(2004). Toward geography of personality trai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5, 13-28, Judith Rich Harris, 「개성의 탄생」, 광미경 역, 동녘사이언스, 2007, p. 276에서 재인용.

### Ⅲ. 작품의 전개와 표현 방법

본 장에서는 앞장에서 언급한 현대사회 속에서 개인과 집단 사이에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본인의 작품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에 대해 서술하며, 작품의 소재와 조형적 표현 방법에 따른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1. 상징기호로써의 소재 선택

우리는 기호의 그물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기호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한다. 또한 기호는 인간의 삶과 깊숙하게 얽혀있으며 사회적 작용력을 구체화 할 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된다. 기호작용은 기호가 해석자에게 일으키는 인식효과이며 그 효과는 해석자의 마음에 새로 만들어낸 어떤 것으로, 그 어떤 것이 바로 기호이다. 즉 기호는 어떤 것의 대표로서 인간 외면으로부터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우리는 논리적이지 않은, 정신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형식이나 혹은 감정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상징적 형식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형식은 예술의 특성이며 본질이다.<sup>26)</sup> 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 작가는 “의식적으로 어떤 외적인 기호를 통해 자신이 살면서 느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거기에 감염된 사람들은 같은 감정을 체험한다.”<sup>27)</sup> 회화에 담긴 이미지는 일종의 기호인 셈이다. 중세의 성상화나 이콘화가 아니더라도 기호와 상징은 거의 모든 예술작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된 기호를 도상이라 일컫는데, 도상은 홀로 독립되어 있기 보다는 다른 기호의 유형들과 조합을 이루며 있다. 이것은 기호가 대부분 다중 의

26) Susanne K. Langer,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승훈 역, 고려원, 1983, p. 107

27) Tolstoy, 「What is art」, Trans. Aylmer Maude, Oxford(World's Classics), 1930, p.123, Herbert Read, 「예술의 의미」, 임산 역, 에코리브르, 2006, p. 285 재인용

미체 polysemy 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호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을 불러일으킨다.<sup>28)</sup>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물은 그 사람의 취향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 1931~1958)는 기호의 세 가지 유형으로 도상 icon, 지표 index, 상징 symbol을 제시했다. 취향으로 그 사람의 성향, 나아가 아비투스<sup>29)</sup>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기호의 유형이 서로 조합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호는 인간의 현실을 축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본인의 초기 작품[작품1,2,3,4,5,6,7참조]에서 사용된 소재는 일상적 풍경과 사물이 주를 이룬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관찰되어진 일상은 작가에게 의미 부여 됨으로써 화면에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특히 [작품4]는 본인의 물건들을 사진 찍고 한데 엮어 만든 일종의 플립-북(Flip-book)이다. 이 작품은 단순히 ‘나’에게 ‘의미부여’됨으로써 재탄생되어지는 사물들을 재발견하고자 함에 의의가 있었다. 이 작품은 주변 사람들의 사물을 그린 [작품6]과도 이어지는데, 다른 사람의 의미 있는 사물로 그 사람을 드러내고자 했다. 하지만 점점 개인에게 속해있는 사물들이 개인의 필요와 취향을 나타내 주는 것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하여 [작품7]은 본인 주변의 또래 30명의 소지품 5개씩을 찍고 엮어 그들의 아비투스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이렇게 개인의 취향이 담긴 사물은 나아가서는 한 개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현대사회 속에서 일상적이고 통상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사물이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 ‘보통의 것’을 벗어나게 되면 이는 더 이상 평범한 사물이 아닌 한 개인의 아비투스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즉 공적인 사물이 사적인 사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개인을 정의할 수

---

28) Benveniste, Émile(1985), 「The semiology of language」, In Robert E. Innis(ed.), Semiotics:An Introductory Anthology, Bloomington:Indiana University Press, pp.22-250, 김강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5, pp. 11~60, 124에서 재인용

있을 만큼의 위력을 지닌 이러한 사물들이 현대사회 안에서 대량으로 생산되어 누구에게나 접할 수 있는 사물들이었다는 점은 어찌 보면 현대인에게서 공통된 아비투스<sup>29</sup>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인이 이렇게 사물을 소재로 함으로써 개인의 아비투스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현대인의 동일한 아비투스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본인의 첫 번째 개인전 전시제목인 <monoground, commonground>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하였다. 기존의 ‘단독의, 혼자, 하나’ 라는 뜻을 가진 ‘mono’ 라는 접사에 명사 ‘ground’ 를 붙여 ‘개인의 장’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monoground’ 를 만들었다. 이 단어로 개성을 중요시하고 스스로의 취향을 만들어가는 능동적 개인주의 성향을 내비치는 현대인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monoground와 상충되는 개념으로 공통된, 공통점 이라는 뜻의 ‘commonground’ 를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아비투스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에게도 보이는 아비투스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하였다. 덧붙여 ground는 부르디외의 장(Fields)이론<sup>29</sup>으로부터 참고하였다.

본인은 일상적인 사물로부터 소재를 선택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개념을 상징적으로 보이게 하였다. 이러한 상징은 ‘예술로서의 상징’ 적 의미를 지닌다. 이는 상징들이 사물들을 가리키고 사실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들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30</sup>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에서는 본인이 이번 작품에서 사용한 두 가지 상징기호인 커피 컵과 텍스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

29) 부르디외는 경제자본이 지배하는 장을 경제적 장, 문화자본이 지배적인 공간을 문화적 장, 사회자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공간을 사회적 장으로 지칭하였다.(하상복, 「세계화의 두 얼굴: 부르디외&기든스」, 김영사, 2006, p. 89) 이것에서 연유하여 본인은 개인과 집단이 주를 이루는 각각의 장으로서 ground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30) Susanne K. Langer, p 112

## 1) 커피(음료) 컵; 한국에서의 상징적 의미

수많은 카페와 커피전문점이 생겨나고 차 문화가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 커피는 혼자 있을 때나 누군가를 만날 때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기호식품 중 하나이다. 사실 커피를 마시는 행위는 단지 마시는 그 자체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서구식 생활환경에서 아침마다 마시는 커피는 개인에게 반복되는 일상행위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시는 커피는 사회적 의례의 기초가 된다. 사람을 만나 커피를 마시는 것도 단지 커피를 마신다는 것 보다 함께하며 대화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sup>31)</sup>

우리나라에서는 21세기가 되면서 테이크아웃형 커피전문점이 본격적인 붐을 일으켰다. 이미 1980~90년부터 뜨거워진 국내 커피시장이었지만, 이는 과거의 다방문화, 자판기커피 혹은 캔커피 문화라 불리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마치 담뱃진을 그대로 마시는 듯 쓰디쓴 맛을 자아내는 에스프레소는 커피의 순수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에스프레소는 “기존 한국식 커피문화에 대한 도전”이라 볼 수 있다. 종지만한 작은 잔에 나오는 이 까만 액체는 질보다 양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겐 터무니없이 작은 양일뿐더러 믹스커피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독한 맛인 것이다. 그러나 점점 에스프레소 커피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고 더불어 테이크아웃 문화를 꽃피웠다.<sup>32)</sup>

1999년에 1호점을 낸 스타벅스(starbucks)는 국내에 테이크아웃 붐을 일으킨 대표주자이다. 일단 커피를 주문하는 방식부터 다른 스타벅스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주문하고 또 이를 마시기 위해 줄서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게다가 커피 값은 밥값보다 비싸기도 하고 매장에서

31) Anthony Giddens, 「Sociology」, Polity Press, 2006, pp. 4~5

32) 강준만·오두진, 「고종 스타벅스에 가다」, 인물과 사상사, 2008, pp.199~200

마신 후에는 스스로 잘 정리하고 나가야 한다. 이는 기존 다방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다. 이렇게 “복잡한 개인의 취향을 묻고 개인화를 지향<sup>33)</sup>” 하는 전문점 커피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빠르게 확산시켜가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미국 커피시장의 사정도 스타벅스가 등장하기 전 후로 나뉠 수 있을 만큼 이 스타벅스의 등장은 대단한 것이었다.

과거의 다방과 다른 또 하나의 풍경은 더 이상 만남의 장소로만이 이러한 장소를 찾지 않는 데에 있다. 테이크아웃형 커피전문점은 만남의 장소 이상을 제공한다. 노트북 등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인터넷연결이 가능한 테이블은 개인화 된 현대인들에게 집과 직장 이상의 업무공간을 만들어주었다. 이는 스타벅스 회장 하워드 슉츠(Howard Schultz, 1953~)가 말한 ‘제 3의 장소’이기도 하다. 현대인들은 늘 시간 부족을 느끼고 매 순간 분주하게 지낸다. 이런 생활 속에서 현대인들은 짧은 휴식이라도 취하길 원한다.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세련된 음악과 함께 커피를 가는 에스프레소 기계 소리가 들리고, 매장에 가득 풍기는 커피 향과 숙련된 솜씨로 나만의 커피를 만들어주는 바리스타가 있는 집과 직장을 떠난 이 나만의 장소<sup>34)</sup>’는 ‘제 3의 장소’ 로써 소소한 사치나 호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때 커피 값은 밥값보다 비싼 것이어도 상관없는 것이다.

본인의 Just Cup[작품3,8,10 참조] 작품들은 이러한 환경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본인 역시 스타벅스를 비롯한 커피전문점을 애용하고 또 이곳에서 나만의 공간을 자주 만든다.<sup>35)</sup> 이러한 일상은 본인을 비롯한 현대인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 제 3의 장소에서 만끽하는 삶의 여유와 편안함

33) 하지현, 「도시 심리학」, 해냄, 2009, p.72

34) 맹명관, 「스타벅스 100호점의 숨겨진 비밀」, 비전코리아, 2005, p.108참고

35) 이런 공간에서 본인이 느꼈던 심상을 표현한 작품은 [작품1,2]이다. 자세한 설명은 작품분석에서 이야기 하겠다.

이 나아가 현대인들의 생활 속 일부분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근대화는 곧 서구화를 의미하는 한국에서 커피는 서구화의 상징이 되었으며 사교행위의 주요 매개 수단이 되어주었다. 커피는 음료라기보다 소통의 수단이었다. ‘빨리빨리’가 한국을 떠올리는 단어가 되었지만, 이 가운데에 인스턴트커피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아직도 다방은 잔존하고 여전히 커피믹스는 커피시장의 선두에 있다. 개성화를 추구하는 것에 너그러운 현대사회에서 현대인들은 집단의 통일성이 때로는 확실성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반대로 집단의 편안함이 가져다주는 소속감과 안정감 또한 무시될 수 없는 것이었다. 또 한국인들은 커피를 마시는 법을 두고서도 개인의 취향을 가늠하기도 했으며, 이런 평가는 유행에 따라 차이를 보이면서 지속되었다. 이는 앞서 본 논문에서 설명한 브루디외의 아비튀스로 역시 설명되어진다. 즉 커피를 마시는 취향으로도 한 개인의 아비튀스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따라하기’ 문화가 퍼져있는 한국에서 사실 취향과 계급의 관계는 불투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커피문화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더욱 짙다.<sup>36)</sup>

이렇듯 본 연구자가 커피나 음료가 담긴 컵을 본인 작업에 있어 하나의 상징기호로 삼은 데에는 커피를 마시는 행위 속에 수많은 상징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취향에 맞춰 주문하는 복잡함과 인스턴트커피가 주는 단순함 속에서 현대인의 개성화와 사회화 가운데 나타나는 간극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은 본 논문 II에서 설명한 현대사회의 개인과 집단 사이의 메커니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본인은 위와 같은 배경을 토대로 작업한 [작품 3]을 시작으로 [작품 8]에서는 그 수를 늘려 이러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일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때 본인의 작위적인 판단에 의한 표현방법이 사용되는데 이 표현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2. 조형적 표현’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

36) 강준만·오두진, pp.213~214참고

## 2) 텍스트

텍스트는 기호보다 복잡한 차원을 가진다. 그러나 텍스트가 기호체임은 물론이다. 앞서 말했듯이 표현형식, 즉 예술로서의 상징은 예술작품 그 자체가 된다. 이는 바탕에 얹어진 물감으로부터 창조된 환영, 곧 시각적 형식이다. 이때 바탕과 물감은 소멸한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스크린이 아닌 스크린 속에 나타나는 영상을 보는 것처럼 말이다.<sup>37)</sup> 본인 작품에 ‘그러진’ ‘텍스트’는 컵에 그려진 문양이나 글씨 등을 나타내는데서 출발하였다. 이전 작품에서 그려진 컵의 텍스트[작품3 참조]는 본인 앞에 있는 컵의 실재를 나름의 방식으로 재현함에 목적을 두어 그린 것이었다. 때문에 컵에 그려진 문구들은 제조회사의 이름이나 슬로건일 뿐이었다. 마치 유명 상표의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그 상품의 마케팅과 선전에 따라 명명되고 심지어 소유되는 것처럼 말이다. 본인은 이 작품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컵에 문구에 있는 제조사의 심벌마크 대신 개인적인 사색이 담긴 텍스트,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을 집어넣었다. 이는 커피를 마시고 있는 장소 등과 무관한 오로지 개인에게 집중한 상황과 병치된다.

본인의 작업에 그려진 텍스트는 역시 기호의 형식이 되며 상징이미지로써 표현될 수 있다. 그리하여, 시각적인 이미지로서 인식됨과 동시에 언어적 요소로서 상응하게 된다. 바바라 크루저(barbara kruger, 1945~)의 <Picture/Readings>(1978)[도판1]는 그녀의 사진과 텍스트를 결합한 구성이 완결되어지는 작품인데, LA, 플로리다, 버클리, 디어필드 지역의 건축과 식물을 중심으로 찍은 사진에 이로부터 연상되는 텍스트를 결합시킨 작품이다. 창문을 중심으로 찍은 사진 옆에 쓰인 텍스트의 내용은 건물의 외관과 내부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남녀의 문제를 3인칭시점에서 묘사한 것이다. 이는 이면에 담긴 상황을 유추하는 방식인데, 이것으로 사진과 텍스트

37) Susanne K. Langer, p. 110

는 상호 보충적인 관계에 있으며 독자는 두 요소를 보완적으로 인식하게 된다.<sup>38)</sup> 본인 역시 Just Cup시리즈에 컵과 텍스트를 함께 병치함으로써, 크루저의 작품에 나타나는 특징인, 두 ‘기호’의 상호보완성과 이에 관객을 능동적인 참가자로 서게 하는 효과를 주고자 하였다.

“작품에서 사용된 텍스트는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작품 내부에서 이미지와의 상호 작용으로 메시지를 완결하는 요소이다.”<sup>39)</sup> 일단 텍스트의 의미는 작가가 작품을 만들 당시의 심리적, 문화적, 시대적 상황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 이는 보는 이의 사회적, 문화적, 시대적 조건 등에 따라 텍스트의 언어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해석되는 총체적 의미는 무한히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sup>40)</sup> 뿐만 아니라, 보는 이는 그가 처해있는 특정 장소나 시간에 따라서도 찾아내는 텍스트의 의미가 달라진다.

본인이 사용한 텍스트는 단어 혹은 문장으로 그 내용이 이루어진다. 그림을 보는 이들이 각각의 텍스트를 이어 문장을 발견하거나 해석한다면, 그들의 언어, 종교, 사회, 철학 등의 관점에 따라 그림 속 텍스트의 의미는 무한히 가변적이 될 것이다.

[작품8]은 위 작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텍스트가 도드라진다. 이 작품에 쓰인 텍스트의 내용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스스로에게 많이 하는 말들’을 배열한 것이다. 제니 홀저(Jenny Holzer, 1950~)는 <경구 truisms>(1977~79)[도판2]에서 자신이 지어냈지만 글의 내용은 교훈적이거나 공공성을 띄게 하여 익명적인 것으로 보이도록 표현했다. 그녀는 텍스트의 내용이 사실이거나 아니거나, 혹은 광고이건 예술작품이건 상관없이 보이도록 전시했다. 본인은 홀저가 공공성을 띄는 문구를 사용한 것과는 그 텍스트의 성향이 다르지만, 그녀가 텍스트를 사용하여 해석자가 그에 반응

---

38) 김정혜, 「바바라 크루저(B.Kruger) 작품의 사진이미지와 텍스트에 관한 연구 : 1970년대 후기-80년대 전기 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pp. 37~39

39) 김정혜, p. 74

40) 박이문, 「나는 읽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베스트프렌드, 2008, p. 6

하고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며 개인들의 욕망이나 신체에 각인된 이데올로기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sup>41)</sup>은 본인과 공통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본인 작품에서의 ‘스스로에게 많이 하는 말들’은 개인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어찌면 진부한 문구로 보이기도 한다. [작품9]에서 사용된 ‘CHEER UP(기운내)’와 같은 단어를 한 예로 보자. 이 단어는 본인이 스스로에게 많이 하는 말들 중 하나이다. 누군가를 격려할 때 흔히 쓰이는 이 단어는, 한 국내 의류브랜드가 자사의 캠페인<sup>42)</sup>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세계적인 경기불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자 하는 커다란 의도가 아니더라도 이 단어는 삶 속에서 스스로에게 흔히 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러한 단어는 본인의 작품에서 ‘CHEER UP’뿐만 아니라 ‘NEVERMIND(상관마)’, ‘I’LL BE FINE(괜찮아)’ 등 다양하게 그려진다.

이를 조금 확대해 보면, 미국 작가 앨런 맥컬럼(Allan Mccollum, 1944~)의 작품[도판3 참조]에서도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작품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남·녀의 이름들을 각각 600개씩 나열한 것이다. 맥컬럼은 이 작품을 통해 ‘나’, 그리고 ‘나와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일종의 공허함을 느끼게 해 주었다. 본인의 작품 속 텍스트들 또한 맥컬럼의 동명이인처럼 개인의 특수성이 일반화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이 그린 단어들은 스스로에게는 의미 있기 때문에 특별하지만 한편으로는 통속적이기도 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단어들이 사적인 위치에 있음과 동시에 공적인 단어로써 있기도 하고, 이는 본인이 상징 기호로써 선택한 대량생산된 사물들과 같이 사적인 것과 공적

---

41) 권혜인, 「시각예술에서 문자기호(verbal sign)의 사회적 의미 : 체니 홀저와 소피 칼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42) (주)지오다노는 2009년 자사의 캠페인으로 ‘CHEER U UP’이라는 모토를 내걸었다. 이 캠페인은 ‘유머’라는 모티브를 사용해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힘을 주고자 기획된 것으로 스마일 페이스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유머러스한 디자인의 프린트 티를 매개체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전달하고 행복감을 모두에게 전염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조은혜, 2009)

인 것의 경계를 넘나드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는 해석자가 텍스트의 내용에 공감한다면 그 또한 동시대적인 보편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주는 상징적 기호가 되는 것이다.

## 2. 조형적 표현

### 1) 상징적 반복을 통한 현대사회 조명

반복이 가지는 조형적 개념은 어떤 형태와 형태 사이, 공간과 공간 사이에 대한 동일한 형태의 연속과 율동적인 회전을 뜻한다.<sup>43)</sup> 산업사회의 시작과 함께 등장한 기계적 대량생산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물의 존재 또한 반복을 상징한다. 반복이 지니는 천편일률적인 특징이 현대사회의 산업적 특징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본인의 작업은 현대사회를 기반에 둔 작업으로써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현대사회의 특징적인 모습을 반복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이게 했다.

앤디 워홀(Andrew Warhol, 1928~1987)은 캠벨수프 깡통[도판4]에 대해 “나의 자유의지가 어떤 특정한 수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매스컴이 판 찍어 준 특정의 수프를 마시는 기계적 상황에 빠져있다.”<sup>44)</sup>라고 말했다. 이는 대량소비사회가 주입하는 반복성을 200개의 반복되는 캠벨수프 깡통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워홀은 일상적이고 통속적인 이미지 즉, 캠벨수프 깡통, 코카콜라, 브릴로 박스 등으로 기계적인 반복을 추진했다. 이 반복은 이미지를 지긋지긋하게 반복시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내용에 대한 감각 상실을 가져온다.<sup>45)</sup> 워홀이 가져온 이미지는 기호가 되었다.

43) 한석우, 「입체조형」, 미진사, 1991, p.35

44) 김춘일, 「팝아트와 현대인」, 열화당, 1986, p. 48

45) John A. Walker, 대중매체시대의 예술, 정진국 역, 열화당, 1990, p. 43

또 이를 반복함으로써 현존성을 상실하고 심지어는 텅 비게 만들어 버렸다.

본인 작품에서의 반복을 통한 연작형태는 위홀이 이미지(기호)의 반복을 통해 결국 ‘nothing’ 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과 일부분 흡사하다. 그러나 본인은 반복을 ‘차이의 반복을 통한 반복’으로써 사용하여 각각의 정체성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점에서 위홀의 반복과 큰 차이가 있다.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는 반복에 대해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개념을 지닌 듯 보이지만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스스로 위장하면서 자신을 구성한다고 하였다. 반복은 단순한 동일성의 개념이 아닌 또 하나의 의미를 만들게 된다. 즉 차이의 반복을 통해 재생산되는 것이다.<sup>46)</sup>

이러한 개념으로 바탕으로 한 조형적 특성은 앨런 맥컬럼의 작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맥컬럼의 작업은 수없이 반복되는 이미지로 그의 관념을 보여준다. [도판5]는 1989년 뉴욕에서 있었던 그의 전시장면이다. 서로의 모양을 반복하며 앉아있는 이 2000개의 액자 속 드로잉은 200개의 별 차이 없는 것으로부터 자가 복제되며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맹목적인 생산은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나 집중되려는 목적이 없는 자기복제를 보여준다. 맥컬럼은 현대의 삶에서부터 영감을 얻는다. 그의 작업은 대형마트에 줄지어진 동일한 상품진열대를 연상시킨다. 수없이 반복됨으로 생겨나는 아무 의미 없어지는 두려움을 일제히 배치함으로써 극단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맥컬럼의 작업은 대량생산의 잠재적인 충고를 화두로 던진다. 자기재생의 정체에 잠겨있고 다른 구조를 모방하는 것을 그는 충고한다.<sup>47)</sup> 그가 2005년부터 시작한 Shape작업[도판6]은 사람들이 만드는 일종의 엠블럼 emblem이 그들이 속한 그룹의 소속감을 갖게 하는 상징적 기호로써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렇다면 왜 개인에게도 엠블럼을 부여하지 않는가에 의문을 가지면서 시작된 작업이다. 그의 작업은 미국 인구 수 만큼이나

46) Gilles Deleuze, 「차이와 반복」, 김상환 역, 민음사, 2004, pp. 56~65

47) Dena Shottenkirk, (1990) Allan McCollum: Drawings, John Weber, NYC. Artforum. Vol. 28, pp. 164-65.

엄청난 개수로 복제된다.<sup>48)</sup> 이렇게 그의 작품들은 수백 수천 개가 나열되면서 ‘무언가의 기호 signs for anything’가 된다. 개별의 작품들은 소품 혹은 장식성을 가질지 모른다. 하지만 각각의 특별한 내용들은 중요하지 않으며, 가치가 없을 수도 있으며, 다른 개체에서 떨어져 나올 경우에는 중요한 어떤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전체 안에서 개별적인 중요성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sup>49)</sup>

반복은 이미지를 반복할수록 오히려 그 이미지가 가진 힘을 약화시키는 특징을 지닌다. 본인의 반복된 이미지 역시 반복될수록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 버리는 체험을 경험한다. 하지만 앞서 들뢰즈가 말했듯이, 반복은 차이와 상생한다. 본인의 작품의 특징인 반복을 통한 연작형태는 결국 ‘something’과 ‘nothing’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으로써 개인과 집단 사이의 간극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함에 있다. 이는 본인의 작품에서 전체 속에 각각의 반복된 미세한 차이로 이루어진 개체들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

## 2) 단순화와 무채색을 통한 현대인의 심상(心象) 표현

단순화는 어떤 현상이 빚어내는 긴장감의 정도라 할 수 있다. 형태의 단순화는 그것을 이루고 있는 다른 조형적 요소를 상징화함으로써 본래의 내용보다 시각적으로 효과적인 인식을 하도록 도와준다.

단순화 된 화면은 본인의 작품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시각적 요소이다. 본인 작품에서의 단순성은 사회적인 이론과 더불어 나타나게 된다. 이는 외면

---

48) Allan Mccollum, The Shapes Project: Introduction, 2006

49) 이상화, 「암시적 기호로 상징된 회화 연구 :본인작품 <Sign of Suggestion> 시리즈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청구논문, 2008, p. 9

적으로는 사교성 넘치는 듯 보이지만 내면적인 불안과 고독, 고립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의 심상(心狀)을 오히려 무표정한 단순화로써 나타내고자 함이었다. 이는 불필요한 감정을 배제시키고 오히려 그 본질을 투과시키고자 하는 점에서 단순화가 가진 조형적 특성인 ‘순수한 조형성의 상징’과 일맥상통하다. 여기서 본인은 단순성을 본질을 향한 조형적 기법으로써 사용한 작가들을 잠시 언급하고 본인의 작품과 비교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의 작품 「춤Ⅱ」[도판7]는 강렬한 색 사용과 더불어 형태의 단순화를 극대화 한 그의 걸작 중 하나이다. 마티스의 단순화된 작품들은 창조행위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서기 위함이었다. 그는 형태 뿐 아니라 색채선택의 범위도 단순화시키면서 그가 추구했던 ‘순수 예술의 의지’에 다가서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마티스는 생각과 세밀한 감수성을 단순화시킴으로써 오히려 고요함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마티스의 단순함과 달리 또 다른 면에서의 단순함을 추구하는 작업으로는 1960년대 미니멀리즘 작품들을 찾아볼 수 있다. 미니멀리즘 작가들의 작품들은 시각적으로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그들 역시 단순화를 통해 본질에 다가서고자 했던 점은 동일하다. 미니멀리즘의 작품들은 회화가 아닌 조형물로써 주된 작품을 이끌어어나가는데, 이는 소통에 있어서 평면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니멀리즘의 단순성은 그들이 소통의 문제를 끌고 오면서부터 시작 되었다.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관객들이 어떻게 경험하며 작품을 느끼는가’를 중요시했다. 때문에 관객들이 사물의 보다 본질적인 요소를 단번에 지각할 수 있도록 사물을 최소화하기 시작했다. 예술 작품의 제작방식이나 작가와 수용의 관습을 파괴하면서 미니멀리즘은 예술을 둘러싸고 있던 모호한 신화를 벗겨낸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사물은 극도로 단순화되어 사각형, 삼각형, 원 등 단순한 기본형태만 남게 된 것이다.

본인은 이렇게 단순성을 띤 그리고 단순화되어 표현된 작품들이 어떠한 연유에서 단순성을 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에서 마티스와 미니멀리즘을 예로 들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단순화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요소들을 함축적이고 방해 없이 보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마티스와 미니멀리즘의 작가들은 서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본인이 언급하고자 하는 단순성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본질에 다가서기 위한 자세는 마티스와 미니멀리즘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즉, ‘순수한 조형성의 상징’을 찾아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인의 작업은 마티스가 색채효과를 극명히 하기 위해 화면을 단순화시키며 평면화한 것과는 반대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적 내러티브를 극대화하기 위해 형태의 단순화를 피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어 형태를 의도적으로 단순화하고 주변상황을 삭제하면서 남긴 구성요소에 본인이 체험하고 느낀 고독과 허무를 담아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니멀리즘과도 매우 거리가 멀다. 하지만, 단순성이 지니는 명료함과 주변을 배제시키고 나타내는 본질에 대한 표현은 본인이 표현하고자하는 단순성과 다름없다.

이렇게 형태를 단순화 하는 과정 외에도 본인은 무채색조의 단색을 사용하여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질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는 “우리가 색을 응시했을 때 색들의 심리적인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색에서 심리적인 힘이 나타나고, 이 힘이 영혼을 동요시킨다는 것이다.<sup>50)</sup> 본인은 현대사회와 도시를 나타내는 색으로 무채색을 주요색으로 선택하였다. 본인 작품에 쓰인 무채색은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선택된 색이다. 어디에도 분명히 속하지 않는 중간적 색이지만 무채색이야 말로 개성화와 사회화 속에서 오며가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해가는 현대인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한 색일 것이다. 오

50) Wassily Kandinsky,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 역, 열화당, 2000, p. 59

히려 무채색에서 평온함이 느껴지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는, 흔히 가장 고독한 곳이라 말하는 대도시의 혼잡함 속이 오히려 상호 무관심이나 속내 감추기로 서로의 거리가 적당히 유지되면서 느껴지는 자유의 이면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무채색은 명조를 조절하며 표현된다. 또 밝은 회색에서 어두운 회색까지를 기조로 한 작품에 푸른색을 가미하였다. 칸딘스키의 말을 빌리면, 푸른색은 인간적이라 할 수 없는 슬픔의 배음(倍音)을 얻게 되고 특히 푸른색이 밝은 색으로 넘어가면서는 무관심한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sup>51)</sup> 배경이 밝으면 전체의 인상도 밝아진다. 이는 색의 조형적 원리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중요하고 독특한 개성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마티스는 “색은 단순할수록 내면의 감정에 더 강렬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본인은 마티즈의 강렬한 색 표현과는 정 반대인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마티즈는 가능한 한 가장 슬직한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색채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인간의 감각을 밑에서부터 뒤흔들 수 있는 색<sup>52)</sup>을 담아내기 위해 원색을 사용했듯이, 본인의 판단에 의한 무채색 역시 본인의 내면 심리에 의해 환원된 색으로써 역시 그러한 동요를 표현코자 함에 있다.

---

51) Wassily Kandinsky, p. 90

52) 윤현주, 「지식갤러리」, 스타북스, 2008, p. 299

## IV. 작품 분석

[작품 1][작품 2]

본인의 작품은 본인이 스무 살 초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겪게 되었던 고립과 소외, 이로 인한 불안과 고독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카페는 이러한 환경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찾게 되었던 장소였다. 이 장소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나 주변 배경에 대한 흥미는 본인이 처한 상황을 잊게 하는 흥밋거리로 자리잡아갔는데, 이 작품들은 이에 대한 표현이다.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와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있어, 감정표현이 자유롭고 제약이 없는 드로잉기법이 제격이라는 생각으로 종이위에 역시 재료의 제한을 두지 않고 그렸다. 작품 속의 이미지는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주변 환경이나 사물, 사람 등이 각각 오버랩 된 것이다. 이는 카페 등의 어느 장소에 혼자 앉아 이것저것을 힐끔거리며 저장된 기억의 편린을 한 화면에 나타내는 과정에서 선택한 방법이다. 명량한듯한 배경화면 속에는 언제나 어두운 색이 사용되어 있다.

이 작품의 제목인 ‘Journal Extime’은 미셸 투르니에(Michel Tournier, 1924~ )의 책 제목에서 따온 것이다. 불어로 일기는 ‘Journal intime’, 즉 내면의 일기라 하는데 미셸 투르니에는 반대의 의미를 지닌 ‘extime’을 사용하여 외면일기라는 말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내면일기는 개인이 느낀 점이나 내적 성찰에 대한 내용 가진다면, 외면일기는 나의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풍경, 사실 등에 대한 서술이다. 이 작품 역시 본인의 내면풍경이 아닌 ‘나’를 제외한 주변 풍경에 관한 그림이기 때문에 미셸 투르니에의 제목을 차용하였다.

### [작품 3]

[작품 1,2]와 동시에 제작된 표현방법이 다른 그림으로써, [작품1,2]이 본인의 눈으로 고독한 본인의 모습만을 제외한 주변 풍경을 그린 것이었다면, 이 작품은 주변 환경을 제외시키고 오로지 본인의 고독에만 집중된 그림이다. ‘혼자 있는 내 앞에 놓인 커피 컵’을 고독함의 상징으로 삼고 무심하게 내려 보는 시선으로 눈높이를 위쪽에 두었으며 또한 모든 것을 단순화시켰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의 존재를 더욱 부각시키고 나아가서는 허무함에 이르는, 고독한 존재에 대한 표현을 하고자 하였다.

### [작품 4]

이 작품 역시 본인의 처한 상황에서부터 시작된 본인의 수집벽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가진 돈을 모두 써버려도 하나 죄책감을 갖지 않을 정도로 문구나 기타 소품들을 수집하는 본인의 취미는 또 쉽게 버리지 못하는 습관으로 인해 그 수가 날로 늘어갔다. 이 작품은 이러한 본인의 사물을 사진 찍고 프린트하여 책으로 만든 아트 북(Art-book)이다. 남들이 보기에는 몹시 자질구레한 이 소품들을 마치 제품 카탈로그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본인의 수집물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하고, 본인 혼자만의 경험을 공적으로 내보임에 의의가 있다. 본인에게 있어 엄격한 기준으로 골라진 이 사물들은 한편으로는 본인의 아비투스( habitus)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후에 본격적으로 탐구하게 될 개인의 취향에 대한 작품들의 시작이 된다.

### [작품 5]

이 작품은 위 [작품4]에서 사용된 물건들을 입체로 만든 것이다. 본인은 손으로 만들어 내는 과정을 통해 본인에게 의미 있는 물건들과 더 친밀한 감

정을 자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입체적인 표현방법은 평면일 때보다 더 주목성이 있다고 여겨졌다. 이 입체작품은 전문적인 재료나 기법을 이용한 것이 아닌, 종이를 이용하여 정확한 전개도도 없이 본인 나름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엉성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인은 일부러 이러한 서툰 표현방식을 통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순수한 동기에 더욱 가까이 접근 할 수 있었다.

#### [작품 6][작품 7]

본격적으로 개인의 취향을 주제로 한 작업이다. [작품 6]은 본인과 또래집단에 있는 서른 명의 의미 있는 소지품을 [작품 4]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한 것으로, 소지품만으로 그 사람의 취향이나 성향 즉 아비투스(Attitude)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작품 7]은 이 중 몇 사람의 소지품을 캔버스에 옮긴 것이다. 이 물건들은 그 사람의 취향을 나타내지만, 하나씩 그려가면서 느낀 점은 본인에게 그 물건의 주인들을 떠올리게 하는 하나의 장치가 되기도 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본인은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사진이나 입체 등으로 표현한 방법과 단순히 그려내는 방법을 넘어 또 다른 표현방법 등을 연구하여 본인이 보이고자 하는 개념을 더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연구해야겠다.

#### [작품 8]

이 작품은 본 논문의 주요 논지가 되는 작품이다. 작품2에서부터 확대되어 완성된 이 작품은 이번 전시에는 총 100개가 전시 되었다. 숫자 100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계속 첨가되어도 무관할 만큼 개인이라 지칭하는 현대도시인의 수는 많기 때문이다. 유사한 이미지의 각 그림들을 반복하여 한번에 보임으로 개별적 특수성과 유형화된 일반성을 동시에 보여주고자 했으

며, 각각의 그림들 사이의 작지도 크지도 않는 간격으로 개인화와 개성화 되어버린 개개인사이의 틈을 상징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배치하였다.

또한 사용된 캔버스의 사이즈는 모두 동일하다. 사이즈는 각각  $64 \times 48\text{cm}$  인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4:3의 비율, 즉 디지털카메라의 비율을 상징한다. 디지털기계가 보편화되면서 사진을 찍는 행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일이 되어버렸고, 특히 음식을 먹기 전 행해지는 ‘음식사진찍기’는 먹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종의 의식(儀式)과도 같다. 보급화 된 디지털카메라의 비율에 맞게 제작된 캔버스 사이즈는 이러한 상황과 자신의 앞에 놓인 음료 컵에 대한 시선처리를 표현함에 첨가되어진 장치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제조회사의 잘 디자인 된 로고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본인이 집어넣은 텍스트가 그 로고를 대신하고 있다. 이 각각의 단어나 문장들은 총 100개의 그림 속에서 서로 연관 지어 읽혀지기가 가능하며 단독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텍스트의 내용은 본인이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들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으로, 경험한바 관객들은 이 단어를 자신에 맞게 찾아 읽거나 혹은 자신과 관련되는 뜻이 없더라도, 텍스트를 이어가며 해석하려 했다. 이렇게 텍스트를 찾아보는 노력으로 발견된 텍스트는 그 개인의 당시 주변적 상황을 반영한다. 또한 이는 개인의 아비투스<sup>1</sup>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작품 속 그려진 텍스트는 각각 다른 타이포그래피를 취하고 있으며, 본인은 이를 통해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이 달라지면서 이미지로써 쓰인 텍스트의 뜻이 달라지기도 함을 경험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작품에서 커피나 음료가 담긴 컵은 머그컵이 주를 이룬다. 이는 커피전문점 매장 등의 나만의 공간, 즉 제 3의 장소로서의 나만의 공간에 있는 상황을 나타낸 것인데 커피를 마신 후 내려놓아진 컵의 위치에 따라 손잡이의 위치도 다양하다. 또 이 머그컵 사이에 위치한 한 개의 종이컵은 자판기나 믹스커피를 지칭한다. 개인의 취향에 맞춰 주문해 마시는 개인

의 개성이 담긴 커피들 사이에서 마치 자판기커피나 믹스커피가 담겼을 법한 이 종이컵은 본문에서 잠시 언급한 인스턴트커피의 단순함과 편안함을 슬며시 내보인다.

#### [작품 9]

이 작품은 그려진 텍스트를 주로 나타내기 위한 작업으로, [작품 8]의 조형적 형식과 동일하다. 제목은 <Shared Understanding> 즉 공유된 이해라고 풀이된다. 이 작품에 쓰인 텍스트 역시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이나, 내용을 보면 CHEER UP!(기운내!), NEVERMIND(상관마), THANKS GOD(하나님 감사해요), I'LL BE FINE(괜찮아)처럼 매우 통상적인 말들이다. 이 작품은 캔버스의 옆면에 텍스트를 적고 정면에는 [작품 7]에서 원탁의 이미지를 차용했다. 텍스트에 더욱 집중되기 위해 정면의 이미지를 단순화하였지만, 다른 뜻으로는 존재가 사라진 후에도 오래 남겨지는 텍스트를 나타내고자 옆면에 슬쩍 비껴 표현하였다.

#### [작품 10]

이번 전시에 시리즈가 아닌 하나의 작품으로 걸린 그림으로, [작품 7]과 대비되는 효과를 일으키기 위함이다. [작품 7]에서 개개인의 모습이 모여 집단이 된 상태를 보았다면, 이는 개인 즉 하나의 존재를 지칭하는 것이다. 사이즈는 더 작아졌으며, 대비되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작품 7]의 주요 색을 반전시켜 사용하였다.

[작품 11]

이전의 작품들의 주된 소재가 사물이었다면, 이는 인물을 소재로 하였다. 현대사회의 익명성과 획일화를 지닌 현대인의 모습을 간단히 그린 드로잉 작품이다. 본인은 미국사회학자 루이스 위스(Louis Wirth, 1897~1952)가 지적했듯이, 현대 도시에서는 서로가 거리상으로는 가까워졌으나, 대다수가 서로를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본인이 느낀 현대인의 특성 중 하나는, 개인화를 추구하고 혼자 있는 것에도 ‘쿨’ 하지만 막상 외로움은 못 견디는 이중적인 모습이다. 때문에 어디엔가 소속되려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모습을 인물들이 서로 중첩되어 있도록 표현하였다. 또한 직접 소통하는 것보다 휴대폰 문자가 더 편한 현대도시인의 모습을 빗대어 모두 한쪽만을 향해있고 결코 마주보지 않는 구성을 만들었다.

이 작품의 제목인 ‘친숙한 이방인’이 이러한 현대사회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드로잉에 사용된 색은 청색이다. 이브클라인(Yves Klein, 1928~1962)의 청색부터 청색이 가진 의미는 무수하다. 특히 프랑스 역사가 미셸 파스투로(Michel Pastoureau, 1947~)는 그의 저서 「Blue」에서, 청색은 오늘날 사람들이 다른 색보다 월등히 좋아하는 색이라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통계는 본인이 이 작품에 청색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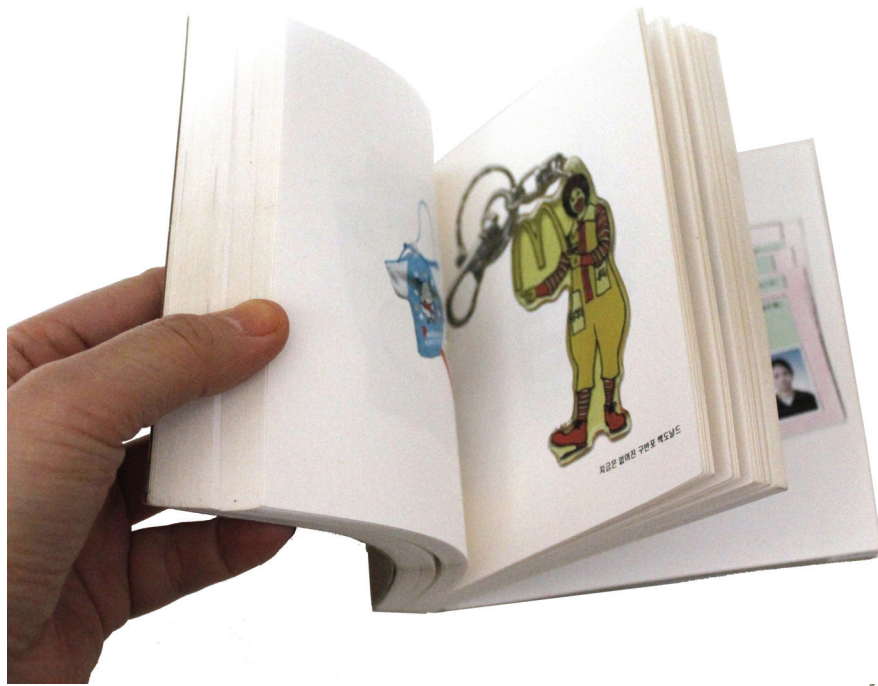
**【작품1】 Journal Extime, 109×79cm, mixed media on paper,  
2006**



**【작품2】 Journal Extime, 79×109cm, mixed media on paper,  
2005**



**【작품3】 Just Cup, 116.8×91cm, acrylic on canvas, 2006**



**【작품4】 Something Special, 12×12×2cm, print on paper with glue binding, 2005~2007**



**【작품5】 Something Special, each unique, acrylic on paper,  
2007**



**【작품6】 In her twenties, 12×12×1.8cm, print on paper with  
glue binding, 2008**



**【작품7】 missing you(series), 90×20cm(each), acrylic on canvas,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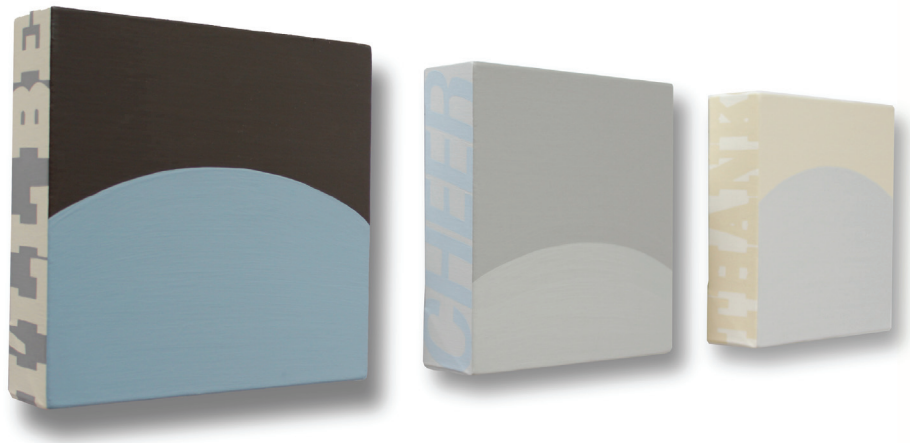
**【작품8】 Just Cup, variable size, acrylic on canvas, 2010  
(64×48cm each 100 panels)**



【작품8】 (detail)



**【작품8】 (Installation)**



**【작품9】 Shared understanding(series), 21×21×5cm, acrylic on canvas, 2010**



**【작품9】 (Installation)**



**【작품10】 Just Cup, 24×21cm, acrylic on canvas, 2010**



**【작품11】 Intimate Stranger, 50×40cm(each), colored pencil on paper, 2010**



**【작품11】 (detail)**

## V. 결 론

현대사회는 대중사회화 되면서 사실상 사회관계의 익명성과 획일화, 비인격성을 가지고 있게 되었지만, 개인의 개성화와 다양성, 친밀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개인과 사회는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모방해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본인의 작업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자신의 취향을 선택하고 향유해 나가는데 있어 그 취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배경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하는데서 시작하였다. 또 이를 나름의 조형적 언어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에 의하면, 개인의 취향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개인에게 축적되어지는 무의식적인 성향체계이다. 현대도시의 삶을 꾸려나가는 현대인들은 개인의 취향을 형성하는데 있어 주변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받고 있다. 본인은 특히 오늘날의 현대사회가 개인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더욱 거세게 행사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진정한 현대인의 취향에 대해 생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바탕으로, 본인의 작품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조형적 특징 중 하나는 연작형태이다. 날개의 작품은 서로 비슷한 이미지로 반복되어 그 수가 많아지지만, 이는 결국 한 개의 작품으로 묶여 진다. 이러한 연작형태를 통해 본인은 개인과 집단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때로 단순한 반복은 결국 무의미함 함과 허무한 감정을 자아낸다. 본인은 단순화 시킨 화면과 무채색의 색조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하여 이러한 심상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써 느끼게 된 개인의 취향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다양한 메커니즘 속에서 취향이 내보이는 상징적 기호를 발견해가며 이를 다양한 조형기법으로 표현해가는 과정은 작가로서의 본인에게 창

조직 동기를 제공하는 귀중한 소재가 되어주었다. 이번 작업을 통해 더 분명한 이론적 정립을 할 수 있었으며, 표현하고자 하는 이론적 개념에 대한 다양한 조형적 표현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의 본인의 작업을 뒤돌아봄으로써 앞으로 더욱 면밀히 관찰하고 심중히 생각하여 보다 성숙된 작업을 해나가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

# 참 고 도 판



[도판1] Barbara Kruger, Picture Reading(detail), 1978



[도판2] Jenny Holzer, 10 Inflammatory Essays, 17×17 inches each, posters on colored paper, 1979–82



[도판3] Allan McCollum, Each and Every One of You,  
4×6 inches each,  
1,200 digital prints on cotton rag (framed)  
600 of the most popular Male and 600 of the most popular  
Female names according to the U.S. Census,  
(presented in order of popularity)  
Ed. 3, 2004 (Installation)



[도판4] Andy Warhol, 200 Campbell's Soup Cans(detail),  
72×100 inches, Acrylic on canvas, 1962



[도판5] Allan McCollum, Drawings, Pencil on museum board,  
each unique, 1989 (Installation)



[도판6] Allan McCollum, The SHAPES Project,  
4.25×5.5 inches each, Framed digital prints, each unique,  
Ten samples of 429,981,696 SHAPES, 2005~ (Installation)



[도판7] Henri Matisse, Dance II, 260×389cm, Oil on Canvas,  
1910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강준만·오두진. (2008). *고종 스타벅스에 가다*. 인물과 사상사.
- 김강용. (2005).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 김춘일. (1986). *팝아트와 현대인*. 열화당.
- 남경태. (2006). *개념어사전*. 들녘.
- 맹명관. (2005). *스타벅스 100호점의 숨겨진 비밀*. 비전코리아.
- 박이문. (2008). *나는 읽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베스트프렌드.
- 양은경 외. (2002). *문화와 계급*. 동문선.
- 윤현주. (2008). *지식갤러리*. 스타북스.
- 하상복. (2006). *세계화의 두 얼굴: 부르디외&기든스*. 김영사.
- 하지현. (2009). *도시 심리학*. 해냄.
- 한석우. (1991). *입체조형*. 미진사.
- 홍두승. (2010).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동아시아.
- 홍성민. (2000). *문화와 아비투스*. 나남출판.
- Anthony Giddens. (2001). *현대 사회학*. 김미숙 외 7인 역.  
을유문화사.
- Anthony Giddens. (2006). *Sociology*. Polity Press.
- David Riesman. (1999). *고독한 군중*. 이상률 역. 문예출판사.
- Georg Simmel. (2005).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윤미애 역.  
새물결.
- Gilles Deleuze. (2004). *차이와 반복*. 김상환 역. 민음사.
- Herbert Read. (2006). *예술의 의미*. 임산 역. 에코리브르.
- Jeremy Rifkin. (2010). *공감의 시대*. 이경남 역. 민음사.

John A. Walker. (1990). 대중매체시대의 예술. 정진국 역. 열화당.  
Judith Rich Harris. (2007). 개성의 탄생. 광미경 역. 동녘사이언스.  
Michel Pastoureau. (2001). Blue : The History of a Color.  
Princeton University Press.

Patrice Bonnewitz. (2000). 부르디외의 사회학 입문. 문경자 역.  
동문선.

Pierre Bourdieu. (2005). 구별짓기. 최종철 역. 새물결.

Pierre Bourdieu. (1984). Distinc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Stephane Olives. (2007). 부르디외,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이상길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Susanne K. Langer. (1983).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승훈 역. 고려원.

Thomas Hine. (2003). 쇼핑의 유혹. 김종식 역. 세종서적.

Wassily Kandinsky. (2000).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 역. 열화당.

#### <학위논문>

권혜인. (2008). 시각예술에서 문자기호(verbal sign)의 사회적 의미.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혜. (2001). 바바라 크루거(B.Kruger) 작품의 사진이미지와  
텍스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상화. (2008). 암시적 기호로 상징된 회화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미혜. (2001). 소비양식에 미치는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의 상대적 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연속간행물 및 기타>**

조은혜. (2009년 4월 28일). 장동건과 유재석, 힘내세요 캠페인.

매일경제. <http://news.mk.co.kr>

Allan Mccollum. (2006). The Shapes Project: Introduction.

Dena Shottenkirk. (1990). Allan McCollum: Drawings. John

Weber. NYC. Artforum. Vol. 28, 164-65.

Graphicstudio. (2004). Tampa. Florida.

# ABSTRACT

## A study on the representation of the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and society

- *Focused on the Author's Artworks* -

Lee, Ji Hyun

Dept. of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 a Latin maxim says that there is no disputing about tastes (De gustibus non est disputandum), there are no correct or wrong things on a person's taste. Thus, people cannot obtain any objective answers about a taste. However, a dispute over a taste is still continuing. Each person has their own taste and among them who have a similar taste, they are naturally formed as a group distinguished from another taste group. Through this activity, people reconfirm their taste as well as hold a sense of superiority (beyond self-respect) over the taste.

Whether an individual actively choose a taste which gives a feeling of superiority to them is argued in this paper based on people living a modern society.

People have a basic desire to make their personality by pursuing something special and particular. Especially, the modern society puts importance on an individual's taste and supports the personalization. Accordingly, people make a constant effort to become a special person which cannot be displaced by others and verify themselves to remain differently from others.

However, in the mass society where the power of mass media has been becoming stronger, modern people are heavily influenced by the mass media. Particularly, in the modern society aiming others, an effect towards an individual

is become double because of growing interest on other people. Therefore contemporary people influence and imitate each other at the same time.

Developing of tendency and a taste of individuals might not only be an active choice in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an individual and a society. I also found out the people who have 'my own taste' which came from my specific experience. This experience that the taste formed by my special event is eventually included in generalization gave me the time to recognize my specialness differently and acted as a motive to observe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an individual and a group.

Artists show that how they discover and understand the world through their formative language. I also tried to express the gap between an individual and a group through my own formative way and want to explain the concept with pieces made based on this observation.

This thesis firstly explained how a social group affects the development of a taste for an individual based on theory of sociology. When I explained about an overall process of formation for person's taste, the concept of Pierre Bourdieu's habitus was used. The main subject of my work is an object and a text as a symbolic sign. Especially everyday commodities familiar with modern people and stereotyped phrases were mainly used in my works to show that the important individual's taste become a general thing in a group. In addition, by increasing the number of pieces as a same type and by arranging it at once through the type of long continuance, I tried to reveal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an individual and a society which stand for an entity and the whole. Like this, my works used symbolic signs, repeating expressions and a type of long continuance of formative showing way to bring the meaning into relief indirectly by using allegory.

Through this research, by analyz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formative method of my works, this opportunity can be used for giving an insight to find the way for my future work.